

2020년 1월 17일 “성경의 큰 숲 보기(30) 아모스: 공의를 흐르게 하라”(암 5:24; 9:11-15)

아모스는 남북 분열 시대였던 주전 8세기에 남 유다의 드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1:1, 7:14-15). 요즘으로 치면 평신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문서를 남긴 선지자 중에 최초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당시의 정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살피겠습니다.

[1] 아모스서의 정황

북 이스라엘이 앗수르에게 멸망(주전 722년)하기 40년전쯤, 주님은 아모스를 북왕국의 사마리아로 보내셨습니다. 북쪽 사람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주변 정세는 앗수르 제국이 급부상하여 이집트 제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도 북왕국은(여로보암 2세때) 경제적, 정치적으로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고 주변의 위협은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거라고 속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가 그들에게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사회의 부유층이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으로 더욱 부패해지는 반면 대다수 백성들은 높은 세금 부담으로(5:11-12) 쪼들리고 지주들에게 더 강하게 예속되는 상태에 빠졌습니다(인신매매까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핵심에서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출 21-23 장, 레 19 장). 그래서 아모스는 기득권층에 매서운 책임을 물었습니다(2:6-8; 3:9-10; 4:1; 6:1-7; 8:4-7).

심판을 가져오는 또 한가지 이유는 잘못된 예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커녕 착취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5:21-24). 이러한 나라 안팎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기적 거짓의 현실, 즉 역창조의 상태를 깨어버릴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야 회복이 가능해지니까요.

[2] 아모스서 말씀의 구성

이 정황 속에서 전해진 아모스서 메시지의 흐름을 보면,

(1) **1-2 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포함하여 8 국가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쏟아집니다.

2:6 “...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2) **3-6 장** 북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

3 장 - 강대국 앗수르 제국에 의해 망함

4 장 - 자신의 죄를 알게 해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았음

5-6 장 - ‘주님을 찾으시면 산다’

5:24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사회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정황 속에서

(3) **7-9:13 장** 다섯 가지 환상, 북이스라엘의 멸망 선언

8:11 ‘...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9:1 이하 다섯 번째 마지막 환상은 성전 붕괴와 민족 전멸을 보여줌

(4) **9:11-15**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11 절. 무너진 다윗의 초막(왕조(다스림))을 회복. 다윗 왕권이 왕국이 분열된 후 무너지자 주변국가들에 대한 통제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셔서 주변 국가들이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12 절**).

14 절. 백성들의 귀환, 성읍들의 재건, 포도원과 과수원의 산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모스서 메시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3] 아모스서의 영적 교훈 – 공의와 사랑

9:11 이하 회복의 약속은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이루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출범한 후에 이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생각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중에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를 예루살렘에서 보고할 때, **암 9:11-12** 을 기억했습니다(**행 15:13-18** 참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핵심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도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보았던 **5:24** 의 말씀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죄의 상황 속에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종 사랑과 공의가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들을 때,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 속에 아픔이 동반된 것일 뿐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히 12:1** 참고). 주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의 성취를 꽃피워 내셨습니다. 즉, 진정한 공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형제자매에 대한 참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아모스서 표현으로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신 것입니다.

<맺음>

아모스 시대에 공의란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임을 보았습니다. 공의는 사랑의 실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없는 공의는 없고,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아직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의 핵심적 가르침 속에서 가난하고 약한 나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 인간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공의가 물처럼 흐르도록 하여 주님의 약속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2. 사랑과 공의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설명하여 보십시오.